

전남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본격 추진

도, 이전 공공기관 연계 투자유치·입주업체 지원 강화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투자유치와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혁신도시 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혁신도시지원단은 나주시, 이전 공공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연구원(식품산업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5개 팀 22명의 '투자 유치단(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

다. 그동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유치활동을 정보·통신기업, 농식품 기업, 문화·예술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각 200만 원 한도로 임대료 또는 금융권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 올해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신청에 대한 사업자의 조기 창업과 개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민원처리 신속처리반(TF)' 운영도 준비 중이다.

올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아파트

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돼 분양 중이다. 현재 750여 개의 사무실과 점포가 분양을 마쳐 이달 중 한꺼번에 입주 승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지식산업센터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주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주시와 협의해 입주 자격 확인 기간을 단축, 최대한 짧은 기간에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입주 승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누리집(<http://innocity.bitgar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식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생산도시화 해야 한다"며 "올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성과를 내고,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5월 12일까지 6주간 100%

전라남도는 오는 5월 12일까지 6주간 소와 염소 7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59만 마리와 염소 11만 마리다. 5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마리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그 외 전염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공급받아 자체 접종하면 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농장 자체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연중 상시 접종토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백신 구입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100% 보조하고 있다. 올해 백신 구입비는 751만 8천 마리분을 위한 135억 원을 확보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백신은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한 마리도 빠짐 없이 정확하게 접종토록 관리해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한 적 없는 청정 전남의 명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제접종 후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 재접종 명령을 하고, 1개월 내 재검사, 축산 관련 지원사업 배제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김태영 기자

광주시,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7개 시·도 1위'

코로나19 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광주광역시시는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공공부문에서 경기 침체시기에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화하고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목표액 중 1분기에 신속집행 부문에서 2조199억원(35%)을 집행했고,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1분기 목표액 4228억원에서 32%(5586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초과 달성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주시는 2분기 경제적 파급력이 큰 소비투자 부문의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매주 실국별 협업팀(T/F)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체계적 예산집행과 관리, 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신속집행 지원단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전남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 관광지 추천
 전라남도는 봄꽃 향연이 펼쳐지는 4월을 맞아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주제로 목포 유달산 꽃정원, 광양 서천 꽃길, 진도 관매도 유채단지를 '안전한 거리 두기'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유달산 꽃 정원은 지상의 꽃길, 바다 위 꽃길, 천상의 꽃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이 정원의 규모를 넘어 파도를 치듯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형상이다. 목포에는 꽃구경만큼이나 환상의 경치를 자랑하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레트로 여행지인 목포 근대역사관, 연희네 슈퍼, 시화골목, 스카이워크, 고하도 해상데크길 등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민일보 4월 23일 창사 21주년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